



김천택과 김수장

서검을 못 일우고 | 김천택

안빈을 염치 말아 | 김수장

서방님 병들어 두고 | 김수장

(가) 조선 전기 시조와 조선 후기 시조는 창법과 담 당층에 따라 구분된다. 시조는 부르는 방식에 따라 가 곡창과 시조창으로 나뉘는데, 시조창은 조선 후기 중인 가객 이세춘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창법이다. 그리고 조선 전기 시조는 주로 사대부 계층에 의해 창작, 수용 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중인층이 시조에 참여하면서 담당 계층을 넓혀 나갔다. 이처럼 조선 후기 시조는 중인 가객의 등장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왔다. 이 가운데 중인 가객인 김천택과 김수장의 등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 조선 후기 시조사의 변화와 김천택과 김수장의 등장

김천택은 당대 명창인 김유기, 김성기 등과 교류하면서 시조를 노래하고 창작하였으며, 김수장은 이들과 달리 노가재라는 가객 활동을 통해 여러 가객과 어울렸다. 김천택과 김수장에 대해 ‘당대 노래에 도통한 사람들’이라는 평가와 ‘김천택과 김수장 문하에서 뛰어난 가객이 배출되었다.’라는 기록들이 전하는데, 이러한 기록들은 김천택과 김수장의 활약을 보여 준다. 그리고 김천택은 <청구영언>을, 김수장은 <해동가요>를 각각 편찬하여 수 세기 동안의 시조 유산을 정리함으로써 시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김천택과 김수장은 전문적인 가객 활동을 통해 시조 음악의 발달과 후진 양성에 공헌하였고, 시조집을 편찬하여 국문 기록 문학으로서 시조의 위상을 올려놓은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 김천택과 김수장의 활약상과 공통점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작품 세계와 사설시조 창작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천택은 중인으로서의 신분에 대한 갈등과 내적 고뇌를 작품에서 드러내었다. 이러한 그의 번민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도 피쳐로서의 강호 자연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김천택은 자신이 직접 사설시조를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시조집에 사설시조를 수록함으로써 사설시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비해 김수장은 신분에 대한 번민이나 갈등은 없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생활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섬세한 관찰은 그의 작품이 갖는 두드러진 점이다. 즉 김수장은 강호 자연을 찾기보다는 세속의 삶을 긍정하고 시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조화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수장은 사설시조를 적극적으로 창작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기도 하였다.

▶ 김천택과 김수장의 차이점

김천택과 김수장 시조에 나타난 이러한 차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김천택이 지녔던 자신의 신분으로 인한 현실과의 갈등이라는 문제는 그가 활동했던 시기의 중인 예술인이 가졌던 현실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김수장이 지녔던 세속적 지향 의식과 시정인에 대한 관심은 당시 서민 문화의 발달과 같은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천택과 김수장의 작품 세계의 시대적 의미

(나)

- [A] 서검(書劍)¹⁾을 못 일우고 쓸 썩 업쓴 몸이 되야
오십(五十) 춘광(春光)을 희움 업씨 지닌연져
두어라 언의 곳 청산(靑山)이야 날 썰 썰이 잇시라.

- 김천택, <서검을 못 일우고>

[초장] 출세하지 못한 자기 신세를 드러냄, [중장] 해 놓은 일이 없음을 안타까워함, [종장] 자연에서 위로받고자 함

- [B] 안빈(安貧)을 염(厭)치 말아 일 업쓰면 귀 죠흔이
벗 업다 한(恨)치 말라 말 업쓰면 이 죠흔이
암아도 수분 안줄(守分安拙)²⁾이 귀 올흔가 호노라.

- 김수장, <안빈을 염치 말아>

[초장] 가난하지만 그로 인해 근심 없어 좋다고 함, [중장] 친구가 없지만 그로 인해 말(구설수)이 없어 좋다고 함, [종장] 모자라거나 부족해도 그것이 자신의 분수라면 받아들여 살아가겠다고 다짐함

- [C] 서방(書房)님 병(病)들여 두고 쓸 것 업서
중루(鍾樓) 저지 달릭³⁾ 과라 비 스고 감 스고 유자(榴子) 스고 석류(石榴) 샅다 아츠츠츠 이저고
오화당(五花糖)⁴⁾을 니저 발여고즈
수박(水朴)에 술⁵⁾ 쏘즈 노코 한숨 계워 호노라.

- 김수장, <서방님 병들어 두고>

[초장] 임이 병중에 있음, [중장] 머리카락을 팔아 임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했음, [종장] 돌아와 보니 중요한 재료를 빼놓은 것을 발견하고 망연자실함

[어휘 풀이]

1) 서검 - 문과 무. 2) 수분 안줄 -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며 편안히 살다가 죽음. 3) 달릭 - 머리카락. 4) 오화당 - 오색으로 물들인 사탕. 5) 술 - 술가락.



<김천택과 김수장>

☑ 3월 물이

- 조선 전기 시조와 조선 후기 시조는 **창법**(노래를 부르는 방식)과 **담당층**(시조 창작을 담당한 계층)에 따라 구분된다.
 - 조선 전후기 시조를 구분하는 기준 2가지이다.
- 시조는 부르는 방식에 따라 **가곡창**과 **시조창**으로 나뉘는데,
 - '창법'을 기준으로 '시조'를 '가곡창'과 '시조창'으로 구별함
 - '가곡창': 가아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기의 연주가 수반되는 정악이다. 악기의 반주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악공이 없는 곳에서는 가창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시조창'이라는 새로운 창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 '시조창': 악기의 반주가 없이 간단히 무릎 장단만으로 박자에 맞춰 가창할 수 있다.
- 시조창은 조선 후기 중인 가객(시조를 잘 짓거나 창을 잘하는 사람을 이르던 말)
 - 이세춘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창법이다. 그리고 조선 전기 시조는 주로 사대부 계층(문관 관료의 총칭)에 의해 창작, 수용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중인층이 시조에 참여하면서 담당 계층을 넓혀 나갔다.
 - '담당층'을 기준으로 구별함
 - 조선 전기 시조: 주로 사대부 계층
 - 조선 후기 시조: 사대부 계층&중인층.
- 이처럼 조선 후기 시조는 중인 가객의 등장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가운데 중인 가객인 **김천택**과 **김수장**(조선 후기 시조에 변화를 일으킨 중인 가객들)의 등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 여기까지 종합하자면, **창법의 차이**에 따라 전기에는 가곡창, 후기에는 가곡창에 더하여 시조창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 담당층의 차이**에 따라 전기에는 사대부계층이 창작, 수용되었으나 후기에는 중인층이 참여하여 담당층이 확대되었다.
- 김천택은 당대 명창인 김유기, 김성기 등과 교류하면서 시조를 노래하고 창작하였으며, 김수장은 아들과 달리 노가재라는 가객 활동을 통해 여러 가객과 어울렸다.
 - '김수장'은 '노가재'를 짓고 이곳에서 여러 가객들과 노래하고 창작하면서 자연 경치를 마음껏 즐겼는데, 이때부터 호를 '노가재'라고 하여 '노가재 가단'이 형성되었다.
- 김천택과 김수장에 대해 '당대 노래에 도통한(노래를 잘 알고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평가와 '김천택과 김수장 문하(가르침을 받는 스승의 아래)에서 뛰어난 가객이 배출되었다.'라는 기록들이 전하는데, 이러한 기록들은 김천택과 김수장의 활약을 보여 준다.

- 기록을 인용하여 김천택과 김수장의 활약을 드러내는 서술상의 방식을 활용함.
- 그리고 김천택은 <청구영언>을, 김수장은 <해동가요>를 각각 편찬하여 수 세기 동안의 시조 유산을 정리함으로써 시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김천택과 김수장은 각각 <청구영언>과 <해동가요>라는 가집을 편찬하여 학자들에게 문화유산으로 물려준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청구영언>: 고려 말엽부터 편찬 당시까지의 여러 사람의 시조를 모아 엮은 책
 - <해동가요>: 당시에 연행되는 가곡의 가사(시조)를 수집해 엮은 책
- 이렇게 김천택과 김수장은 전문적인 가객 활동을 통해 시조 음악의 발달과 후진(후배) 양성에 공헌하였고, 시조집을 편찬하여 국문 기록 문학으로서 시조의 위상을 올려놓은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 김천택'과 '김수장'의 공통점을 요약 정리하여 제시했다.
-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작품 세계와 사설시조 창작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 사설시조 창작 여부: '김천택'과 '김수장'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기준
- **김천택**은 중인으로서의 신분에 대한 갈등과 내적 고뇌를 작품에서 드러내었다.
 - 김천택은 중인 계급의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제법 수준 높은 지식과 문예를 갖춘 사람이었다. 자신의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기에는 신분의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신분에 대한 갈등과 내적 고뇌를 많이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러한 그의 번민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도피처로서의 강호 자연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김천택은 공손하고 겸소하며 평온하고 조용하여 군자의 기품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그와 함께 교유하던 인물인 '김성기'는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높이 찬양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기록의 내용을 참고해보면, 그가 자신의 번민을 해소하기 위해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도피처'로서의 '강호 자연'을 찾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김천택은 자신이 직접 사설시조를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 '김천택'은 사설시조를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다.
 - '사설시조': 시조 중에서 초장과 중장이 길어져 산문적이며 서민적인 형식의 시조
- 자신의 시조집에 사설시조를 수록함으로써 사설시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김천택'의 작품 세계와 사설시조 창작 여부 제시
- '사설시조'에 대한 '김천택'의 긍정적인 영향력
- 여기까지 김수장에 작품세계에 대해 종합하자면, 신분에 대한 갈등과 고뇌를 표한하고 시에 표현되는 강호자연은 도파치의 성격을 나타낸다.
- 또한 직접 사설시조를 창작하지는 않았고, 시조집에 사설시조를 수록하여 사설시조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 즉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청구영언>편찬

• 이에 비해 김수장은 신분에 대한 변민이나 갈등은 없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생활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 '김수장'은 집안의 구차한 살림이나 처자의 굶주림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담담할 정도로 호방한 성격을 지녔었고, 가난 속에서도 노가재를 경영하여 많은 객들과 교류하면서 풍류를 즐겼고, 노래에 열정이 가득했던 인물이었다고 기록되어 진다.

• 특히 여성에 대한 섬세한 관찰은 그의 작품이 갖는 두드러진 점이다. 즉 김수장은 강호 자연을 찾기보다는 세속의 삶을 긍정하고 시정(世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조화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 '김수장'은 현실적 생활을 추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김천택'처럼 '강호 자연을 찾기'보다는 세속의 삶을 긍정하고 시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조화를 추구했다는 것

• 그리고 김수장은 사설시조를 적극적으로 창작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기도 하였다.

- '김수장'의 작품 세계와 사설시조 창작 여부 제시
- '김수장'은 사설시조를 직접 창작했음

- 여기까지 김수장에 작품세계에 대해 종합하자면, 중인인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면서 주변 생활과 인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특히 여성에 대한 관찰이 두드러진다. 세속의 생활을 긍정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추구하였다.
- 또한 사설시조를 창작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나타내었다. <해동가요>편찬

• 김천택과 김수장 시조에 나타난 이러한 차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시대적 배경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천택이 지녔던 자신의 신분으로 인한 현실과의 갈등이라는 문제는 그가 활동했던 시기의 중인 예술인이 가졌던 현실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김수장이 지녔던 세속적 지향 의식과 시정인에 대한 관심은 당시 서민 문화의 발달과 같은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천택이 느낀 신분갈등은 당시의 중인 예술인이 겪은 현실과 관련된 것이고, 김수장의 세속지향이나 시정에 대한 관심은 서민문화 발달 같은 사회적 배경과 관련됨

<서검을 못 일우고>

시구 풀이

• 서검(書劔)¹⁾을 못 일우고

- 학문과 무예를 닦아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 서검: 문과 무, 문무의 벼슬, 즉 입신양명, 출세를 뜻한다.

• 쓸 썩 엷은 몸이 되야

- 평민의 신분인 시적 화자의 처지. 벼슬하지 못하고 늙은 자신의 신세에 대한 탄식

- 벼슬에 올라 입신양명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의미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당시의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

• 오십(五十) 춘광(春光)을 허움 업씨 지늬언저

- 오십 년 한평생을 한 일 없이 지냈구나.

- 시적 화자의 탄식. 영탄법

• 두어라 언의 곳 청산(靑山)이야 날 쥔 쥔이 잇시랴.

- 두어라, 어느 곳의 청산이야 나를 꺼릴 줄이 있겠는가.

- '청산': 자연. 속세에서 겪은 고뇌를 달래 주고 위안을 주는 존재(대유법)

- 세속의 어지러움을 피하여 자연에 묻혀 이상적 삶을 살고자 했던 자연 친화 사상과 속세의 고뇌를 자연에서 위로받고자 했던 선조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세속의 부귀공명을 다 버리고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자연을 의미하는 '청산'이 속세의 현실을 의미하는 '서검'과 대조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특징

- 성격: 회고적, 체념적, 자연 귀의적
- 대유법을 통한 시어의 대조와 설의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함.



<안빈을 염치 말아>

❑ 시구 풀이

• 안빈(安貧)을 염(厭)치 말아

- 안빈[가난한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을 부끄러워(싫어하지) 마라.

• 일 업쓰면 **그 조흔이**

- 일(근심)이 없으면 그것이 좋으니

-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 벗 업다 한(恨)치 말라 말 업쓰면 **이 조흔이**

- 벗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말(구설, 시비, 헐뜯는 말)이 없으면 그것이 좋으니

• 아마도 수분 안줄(守分安拙)[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며 평안히 살다가 **죽**²⁾이 그 올흔가 호노라.

- 아마도 보잘 것 없는 삶이어도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노라.
-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겠다는 태도를 드러냄
- '수분 안줄(守分安拙)': 주제의식 집약

❑ 특징

- 초장과 중장에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 '수분 안줄(守分安拙)'로 시상을 집약하여 드러냄.

<서방님 병들어 두고>

❑ 시구 풀이

• 서방(書房)님 병(病)들어 두고 쓸 것 업서

- 서방님이 병이 들어 두고 돈이 될 만한 것이 없어
- 남편이 병이 들어 집안이 기울

• 종루(鍾樓) 저지[서방] 달리[머리카락]³⁾ 파라 비 스고 감 스고 유자(榴子) 스고 석류(石榴) 샅다 아츰츰 이저고 오화당(五花糖)[오색사탕]⁴⁾을 니저 발여고즈

- 종루 시장에 나가 머리카락 팔아 배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류 샅다. 아차차 잊었구나, 오색 사탕을 잊었구나.

- 평시조의 중장 3·4·3·4의 음수를 초과한 구절로 사설시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머리카락을 팔아 병든 남편에게 만들어 줄 화채의 재료를 사가는 모습에서 아픈 남편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애정이 잘 드러난다. 또한 '아츰아츰'은 오화당을 잊어버린 시적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해학적으로 잘 나타난 있다.

• 수박(水朴)에 술(酒)조 쪼즈 노코 한숨 계워 호노라.

- (화채를 만들려고) 수박에 술가락 꽂아 놓고 한숨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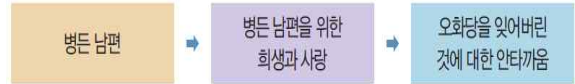
하노라. : **한탄**

- 오화당이 필요한 이유가 종장에 드러나 있다.

- 수박 화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화당'이 필요한데, 급한 마음에 그것을 잊고 와서 수박 화채를 만들지 못하고 한숨을 짓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특징

- 성격: 애정가, 해학적
- 서민의 생활에 밀착된 어휘들(화채 재료)을 나열함으로써 생동감을 부여함.
- 감탄사(아츰츰)을 통해 아낙네의 당황하는 모습을 생동감있게 표현함
- 중장에서 구체적 소재들(화채 재료들)을 나열하고 행동(파고, 스고)을 제시하여 생동감을 얻고 있음.



※ 김천택과 김수장

- 주제: 시조사에서 김천택과 김수장이 기여한 점과 그들의 위상
- 해제: 이 글은 조선 후기 중인 가계인 김천택과 김수장의 시조사적 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구성

[문단] 조선 후기 시조사의 변화와 김천택과 김수장의 등장

[2문단] 김천택과 김수장의 활약상과 공통점

[3문단] 김천택과 김수장의 차이점

[4문단] 김천택과 김수장의 작품 세계의 시대적 의미

※ 김천택, <서경을 못 잊고>

- 주제: 신불적 한계로 인한 좌절과 자연 친화의 소망
- 해제: 이 작품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아픔을 안고 위안의 장소를 찾겠다는 심정을 담은 시조이다.

• 구성

[초장] 출세하지 못한 자기 신세를 드러냄.

[중장] 해 놓은 일이 없음을 안타까워함.

[종장] 자연에서 위로받고자 함.

※ 김수장, <안빈을 염치 말아>

- 주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 해제: 이 작품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만족하며 살겠다는 긍정적 태도를 노래한 시조이다.

• 구성

[초장] 가난하지만 그로 인해 근심 없어 좋다고 함.

[중장] 친구가 없지만 그로 인해 말(구설수)이 없어 좋다고 함.

[종장] 모자라거나 부족해도 그것이 자신의 본수라면 받아들이 살아가
겠다고 다짐함.

※ 김수장, <세방님 병들어 두고>

• 주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

• 해제: 이 작품은 여성 화자가 병중에 있는 임을 위해 임이 좋아
하는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과 준비 과정에서 배
놓은 물건을 두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그린 시조이다.

• 구성

[초장] 임이 병중에 있음.

[중장] 여러가지를 팔아 임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했음.

[종장] 돌아와 보니 중요한 재료를 배놓은 것을 발견하고 망연자실함.



‘개념’ 있는 킹콩™

1. (가)에서 □□은 유교적 입신양명을, □□은 자연을 상징한
다.

2. (나)에서 화자의 삶의 태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시어는
□□□□이다.

3. (다)에서 화자가 깜박 잊고 사 오지 못한 재료는 □□□이다.

4. (가), (나)에 비해 (다)에서는 형식적으로 □□이 긴 사설시
조의 특징이 드러난다.

5. (가)는 대조적 소재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O X]

6. (가)에서는 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O X]

7. (가) 시에서 ‘청산’은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유교적 깨달
음을 주는 존재이다.

[O X]

8. (나)는 중장과 종장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O X]

9. (나)에서 화자는 가난하지만 그로 인해 근심이 없어 좋아하
고 있다.

[O X]

10. (다)는 생활에 밀착한 어휘를 내열하여 생동감을 부여하
고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O X]

11. (다)는 비범한 인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상황을 표현한
작가의 정겨운 시선이 담겨 있다.

[O X]

12. (다)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마음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O X]

13. (다)에서는 당황해 하는 화자의 모습과 애절한 마음이 해
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O X]



김천택과 김수장

서검을 못 일우고 | 김천택

안빈을 염치 말아 | 김수장

서방님 병들여 두고 | 김수장

[개념있는 키클]

- ①서검 청산 ②수분안줄 ③오화당 ④중장 ⑤O ⑥O
⑦X ⑧X ⑨O ⑩O ⑪X ⑫X ⑬X